

한라산의 寒蘭自生地

李 昌 福

Natural Habitat of *Cymbidium kanran* Makino

Tchang Bok Lee

A southern slope of the Mt. Halla was designated as natural monument no. 191 "Natural Habitat of *Cymbidium kanran*", the northern limit of this species, on the 11th July 1967 in order to protect its natural growth. It grows under the wood around 500 meters above sea level. Vegetations associated with *Cymbidium kanran* growth are as the followings. *Quercus acuta*, *Q. stenophylla*, *Dendropanax morbifera*, *Castanopsis cuspidata* var. *thunbergii*, *Cinnamomum japonicum*, *Machilus japonicum*, and *Camellia japonica* mixed with *Carpinus laxiflora* and some remnants of *Pinus thunbergii* form the upper crown while *Eurya japonica*, *Ligustrum japonicum*, *Elaeagnus umbellata*, *Ilex crenata*, *Ardisia crenata* and *A. japonica* fill the 2nd and 3rd stories of it, between those *Stauntonia hexaphylla*, *Trachelospermum asiaticum* and *Smilax china* are crowded here and there. *Dryopteris bissetiana*, *Vittalia flexuosa*, *Ophiopogon japonicum*, *Gonocormus minutus* and *Lemmaphyllum* cover ground and basal part of trunks and exposed part of the rock. From 600 meters above sea level no *Cymbidium kanran* occurred while number of *C. goeringii* increased there.

天然記念物로 指定된 植物中에서 種目體가 指定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한란뿐이다. 한란은 한라산 南側山麓에서부터 日本의 남쪽까지 자라는 常綠草本으로서 滅種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1967年 7月 11日 天然記念物 제191호로 指定하여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日本에 있어서도 우리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꽃이 필만한 크기에 달한 寒蘭은 비교적 高價로 매매되기 때문에 管理의 소홀한 틈을 타서 自生地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제주도과 같이 비교적 단속하기 쉬운 곳에서도 이러한 形便이므로 文化財에 대한 보호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寒蘭이란 12月頃 추운 계절에 꽃이 피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며 春蘭과 비슷하지만 잎이 보다 길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한 花莖에 5~12개의 꽃이 달리는 것이 다르며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 南側斜面 標高 500 m 근처의 숲속에서만 자라고 있다. 몇년전에는 安德溪谷의 냇가에서 한 포기를 發見하고 熊岳 근처의 常綠樹林에서 자랄 것이라고 추측한 바도 있었으나 1975년부터 永豐農事의 李斗應氏에게 依頼하여 專門家를 통한 情報蒐集으로서 비로소 그의 自生地를 確認할 수 있었다. 1976年 2月 李氏의 案内로서 어린 식물을 10餘株 찾을 수 있었으나 꽃이 필만한 크기에 달한 것은 한 포기도 볼수 없었다. 산골짜 깊숙히 들어가서 자라는 것이기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文化財保護法

이 있는 이상 그리고 제주도과 같은 환경에서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橫斷道路의 아리랑고개 밑에서 左側溪谷을 따라 선돌로 향하여 올라가면 破壞된 林相中에 소귀나무가 몇 그루 보이고 점차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참가시, 붉가시, 황칠나무, 동백, 생달 및 센달나무등의 常綠潤葉樹가 자라고 있다. 숲속에는 濕氣가 많기 때문에 岩面과 늙은 나무의 樹幹을 공짜개덩굴이나 부채피붙이끼 등이 차지하고 석위와 바위손 등의 작은 群集도 보이며 비교적 稀貴하게 나타나는 일엽아재비와 애기꼬리고사리등도 부채피붙이끼 틈에서 밑으로 길게 처지고 있다.

선돌 바로 뒷쪽의 稜線에는 죽어가는 곰솔이 몇 그루 남아있고 썩은 樹幹 토막이 여기저기 덩굴고 있다. 林冠이 破壞됨으로 밑에서 자라던 灌木과 덩굴식물이 이리저리 엉키고 常綠潤葉樹의 稚樹가 灌木 틈에서 경쟁을 하고있었다.

周圍의 植生을 살펴보면 모밀잣밤나무, 붉가시, 황칠나무, 굴거리나무, 생달나무, 및 동백나무등의 常綠潤葉樹와 서어나무가 군데군데 자라고 사스레피나무, 팡나무, 보리수나무, 팡팡나무, 자금우 및 백량금등의 常綠 및 落葉灌木 등이 우거지고 멀꿀, 마삭덩굴 및 청미래덩굴이 이리저리 엉키어가며 밑에는 공짜개덩굴, 쪽제비고사리 및 싹막문동이 보인다. 썩은 곰솔 토막 옆에서 2~3개의 잎이 달린 寒蘭이 비스듬히 자라고 있었다. 썩어서 흩쳐럼 물렁물렁하게 된 곰솔이 寒蘭의 增殖에 도움이 되었는지 또는 이런 것으로 가리워졌기 때문에 盜取를 피할 수 있었는지의 판단은 어려웠지만 썩은 나무토막에 깔리다 시피 자라는 것이 特異한 現狀이었으며 鬱閉된 常綠樹林보다도 多少 파괴된 완만한 稜線上的 黑松林跡地에만 남아있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진다.

寒蘭이 자라는 곳에서 標高 100 m 정도 올라가면 한란은 全然 나타나지 않고 春蘭만이 자란다.